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59 검은색과 생활

‘사후 세계 상징’ 검은색 상복 입고 장례 참석

●검은색의 감정

검은색을 좋아하는 타입은 현재의 환경에 대해 불만이 강하다.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에 억눌려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 타입은 반사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불공정한 제도들을 파괴하려는 강한 욕망을 나타낼지도 모른다(현실에 불만). 이들은 위대한 듯이 행동하려 하며,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에 통달해 있다고 남에게 인상을 주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어떤 일에 재치 있게 대응하는 슬기인 기질이 풍부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나타내려고 한다.

●검은색의 심리

검은색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음이나 영원의 해명하기 어려운 신비를 의미하고 있다. 이색을 싫다는 것은 숙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운(運)을 스스로 창조하며, 지배하고 싶다는 뜻이다(숙명적·신비적). 그래서 이들은 주어진 명령에 곧잘 분노를 느끼며,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들을 제어하거나 지배하려는 사람은 강렬한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

검은색의 이미지에는 딱딱하다, 무겁다, 죽음, 불길, 강하다, 정숙, 날카로움을 나타낸다.

검은색의 심리효과에는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두 번째는 가장 무겁게 느껴진다. 세 번째는 상대를 움직이는 힘을 준다. 네 번째는 외부의 자극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

검정은 정치의 색이고, 무관심을 상징한다.

●검은색과 복장

검은색은 예복(禮服)이나 상복(喪服)을 의미한다. 공식적으로 검정이 애도의 색깔로 표시된 시기는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부터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하얀 상복을 입는 민족은 대개 “검은색이 다산을 상징했으며, 다산이 검은색이면 죽음은 하얀색”이라고 믿었다.

1694년 영국의 왕인 윌리엄 3세는 메리 왕비의 죽음을 슬퍼하여 다음과 같이 명했다. 영국의 모든 변호사는 애도의 뜻으로 법정에서 검은색 드레스를 입으라고 했다.

오늘날까지 유럽에서는 통용되는 상복 규정이 있는데, 장례식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은 완전히 검은색 옷을 입는다.

서양이나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상복(喪服)을 검은색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2가지 설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불에 타고 남은 재를 보며 검정을 사후세계의 상징색으로 여겼다는 설이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서는 가족이 죽으면 얼굴이나 온몸에 검은 흙칠을 한 풍속이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더불어 죽는다는 뜻에서 온몸에 검은 흙을 칠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어둠의 색이 검정인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10세 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라도 외출할 때 검은색 차도르를 뒤집어써야 하며, 그 이유는 여성들에게 순종과 금욕을 강조하기 위해서 관습이 된 것이다.

검은색의 제약과 사회적인 반영은 17세기 초 이탈리아의 캠파넬라(Campanella)에 의해서 언급되었고, 키로 디 페르스(Ciro di Pers)의 저서에서 검은색 옷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색은 각 시대에 즐겨 사용되었고, 각 나라는 자기들의 관습이 있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검은색을 좋아한다. 검정은 땅과 물질 그리고 지옥의 색이며, 죽음과 무지의 기호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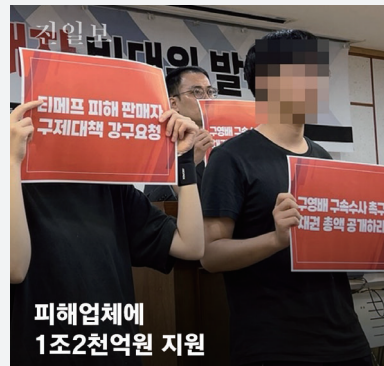
역사의 어떤 시기에는 공식적인 옷으로 ‘엄격한 검은색’이 높이 샀다. 이 검은색은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초상화에서 볼 수 있다. 물론 18세기의 검은색은 베네치아처럼 여러 계급이 섞여 살던 도시에서 거리감과 존경심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여러 색을 사용하던 긴 시기가 지나자 검은색 옷은 1830년경으로 되돌아왔다. 검은색 옷은 모든 시민이 입은 유니폼이 되었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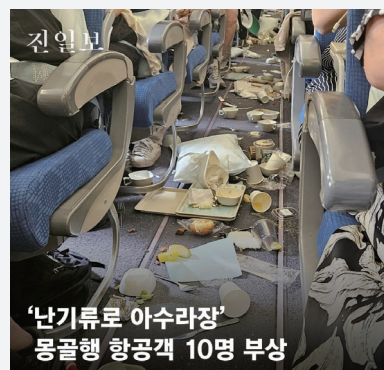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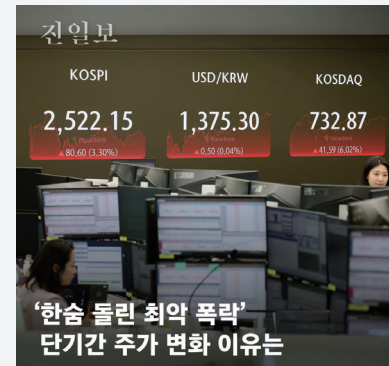
피해업체에 1조2천억원 지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 소비자의 일반상품 환불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다음 주부터는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 분쟁 조정을 진행한다.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총 1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1년 대출만기도 연장한다. 더불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커머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도 논의 중이다.



‘난기류로 아수라장’ 몽골행 항공객 10명 부상

최근 인천에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편이 난기류를 만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당시 항공기는 고도 10.4km 상공에서 강한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약 15초간 위아래로 흔들려 기내식, 수화물 등이 모두 떨어졌다. 이로 인해 승객 10명과 승무원 4명 등이 목,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후 변화로 인한 난기류 발생 빈도는 점점 더 잦아지는 추세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국적 항공사들이 겪은 난기류는 1만482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1만5241건)의 97%에 이른다.



‘한숨 돌린 최악 폭락’ 단기간 추가 변화 이유는

지난 5일 코스피가 전장 대비 8.77% 내린 2441.55에 거래를 마쳤다. 이같은 수치는 2008년 금융위기(-9.44%) 이후 16년 만이다. 다음 날 국내 증시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이어갔다. 이처럼 하루 새 단기적 추가 변화가 심했던 이유로는 경기 둔화의 우려로 폭락한 뉴욕 증시에 대한 영향과 금리가 낮은 엔화를 투자자산으로 수익을 얻는 ‘엔 캐리트레이드’의 청산, 인공지능의 투자 대비 수익에 대한 의구심이 퍼지며 발생한 ‘AI 거품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까지 “40도 폭염 이어진다”

‘밤낮없는’ 무더위가 광복절 직전인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4일 경기 여주시의 낮 기온은 40도를 기록했다. 국내 기온이 40도를 넘긴 것은 지난 2018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기상청은 광복절 전까지 전국 낮 기온이 30~36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했다. 열대야도 지속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무더위는 ‘최악의 여름’으로 불리는 1994년·2018년과 마찬가지로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불처럼 포개진 ‘이중 고기압’의 영향이다. 고온다습한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로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